

반기문 23.0%·문재인 22.5%…오차범위 내 초접전

호남 지지율 문재인 26·이재명 14.4·안철수 12%

국민 10명 중 7명 “헌재, 박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한국지방신문협회·리얼미터 전국 6777명 신년 여론조사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1.2%p)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3면

또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탄핵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광주일보를 비롯한 각 지역 대표 신문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8개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2~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7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3.0%의 지지율을 얻어 조사 대상 15명 중 1위를 달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5%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 전 총장과 혼전을 벌이고 있다.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10.4%)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5.9%) ▲안희정 충남지사(4.4%) ▲오세훈 전 서울시장(3.8%) ▲박원순 서울시장(2.8%)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2.6%) ▲유승민 개혁보수

신당 의원(2.2%)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1.1%) ▲남경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각 1.0%) ▲정운찬 전 총리, 원희룡 제주지사(각 0.4%)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0.3%) 순이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74.2%가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18.2%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무응답층은 7.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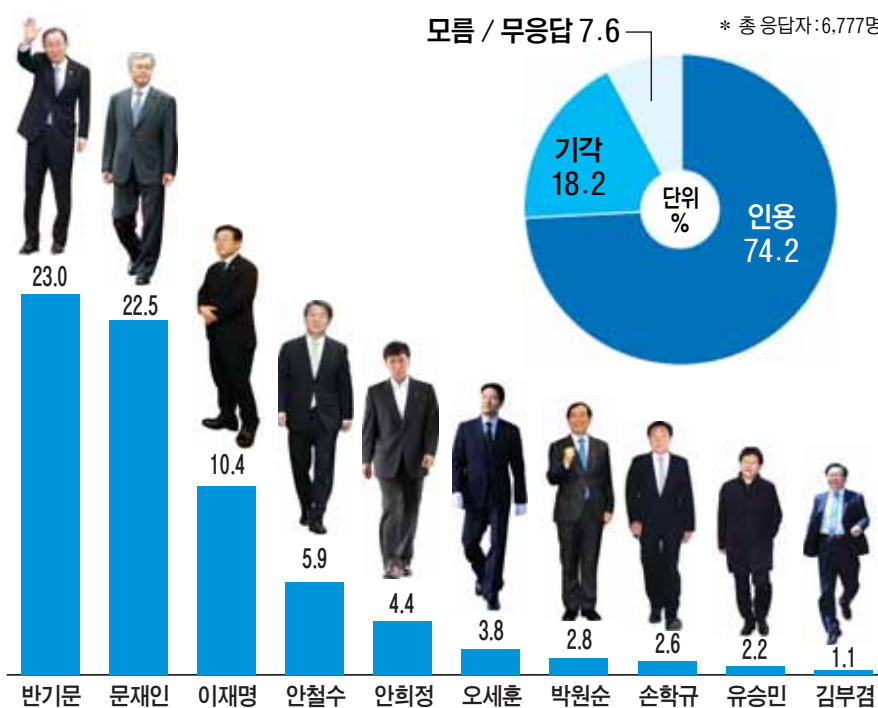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30.1%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달렸고, 새누리당은 최근 분당 사태 등으로 내중에 시달리면서 지지율이 14.3%에 그쳤다.

새누리당 내 비박계가 탈당해 최근 창당한 개혁보수신당은 11.7%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새누리당을 위협하며 9.1%의 지지율에 그친 국민의당을 제치고 창당과 동시에 3당으로 자리를 굳히는 모양새다.

정의당과 기타 정당 지지율은 각 4.4%였다. 하지만,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26.0%에 달하면서 향후 대선 정국에서 무당층의 향배에 따라 정당 지지율이 크게 뒤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개헌 추진 여부와 시기를 묻는 조사에서는 ‘대선 이전 개헌 추진’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41.7%로 가장 많았고, ‘대선 이후 개헌 추진’은 33.4%였다. 9.6%는 개헌에 반대

■전국 대선후보지지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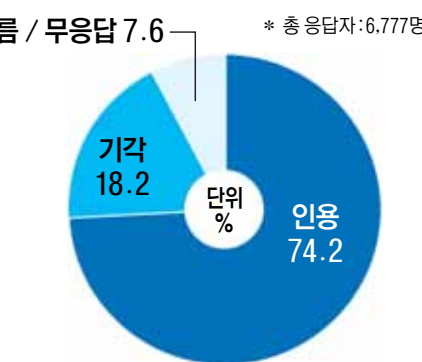


했고, 15.6%는 무응답층이었다.

개헌시 권력구조 개편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8.4%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18.7%는 의원집정부제를, 14.2%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13.5%는 의원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지방분권 인식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고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4.9%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지방분권에 찬성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현상 유지 또는 중앙정부에 권한을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1.4%

■박대통령 탄핵심판 여론(전국)



에 그쳤다. 무응답자는 13.7%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스마트폰 앱·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집방법은 무선(85%)·유선(15%) 임의 전화걸기(RDD) 및 스마트폰 알림 혼용방식으로 이뤄졌다. 전국적인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2% 포인트며, 응답률은 19.7%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호남의 선택이 대한민국 바꾼다

촛불 이끈 광주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기 대선에서 호남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촛불 민심에 의해 기득권 체제에 뿌리를 둔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개혁·진보 진영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야권의 심장인 호남 민심의 정치적 비중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호남 민심의 선택은 조기 대선 결과는 물론 나아가 시대적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호남 민심은 지난 총선에서 ‘호남 주도의 정권창출론’을 고리로 국민의당을 원내 3당으로 견인한데다 조기 대선 정국의 유동성이 커지면 정치적 선택의 폭이 과거에 비해 넓어진 상황이다.

호남 민심이 보다 전략적 선택과 압박에 나선다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새로운 시대의 길을 여는 명분과 호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실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야권 후보들은 앞 다투어 호남

중시와 배려를 강조하고 있지만 깊은 성찰과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호남의 미래를 위한 보다 구체성 있는 공약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사회 전반의 기득권 구조 타파와 개헌·선거제도 개편 등을 호남의 소외 구조 극복과 미래 비전 확보로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시대의 길을 열어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호남 정치권과 광주·전남·도·시·군 등 자치단체는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머리를 맞대고 호남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랜드 디자인을 마련, 대선 공약으로 실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정’을 화두로 하는 시대정신이 실질적으로 광주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이 원동력이 되어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역할론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 희망 안고 솟아 오른 정유년 새 해



정유년(丁酉年)이 시작된 1일 새벽 광주시 남구 금당산 정상에 떠오르는 첫 해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다. 시민들은 이른 아침 운무를 제치며 희망을 품고 힘차게 솟아 오르는 붉은 태양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쌓여있던 ‘적폐’와 ‘어두움’을 말끔하게 씻어내고 희망과 역동으로 가득채워주기를 기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창사 65년 새해 특집 28면 발행

- 여야 대선주자 11인 설문조사 ▶4·5면
-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① 문재인 ▶6면
- 전라도 1000년 新 湖南誌 ▶11면
- 최진석의 ‘老莊의 생각’ ▶12면
- 통일의 길 -탈북민의 삶과 꿈 ▶13면
- ‘서시’ 윤동주 탄생 100주년 ▶14면
- 청년이 미래다 - ‘개미필름’ ▶15면
- 전남도, 남도문에 르네상스 ▶17면

독자 여러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 새해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서로가 있어 행복합니다

2017년에도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 나누는 한 해 되세요

새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